

딸폭행 남편 청부살해사건

“올케 언니가 오죽했으면 오빠를 죽였겠어요?”

97.1.10

시누이가 오빠 살해한 올케 구명운동 나서, 여성단체 가두 서명운동 계획



임순란씨의 남편 살해는 상습적인 아내 구타와 딸에 대한 성폭행 건다 못해 저질러진 것이라고 주위 사람들은 입을 모은다. 사진은 20여년간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 오다 남편을 살해한 이순심씨의 현장 검증 장면.

“오죽하면 올케언니가 오빠 해봐요. 얼마나 치욕적이었으면 그 착한 언니가 그렇게 했을 죽였겠어요. 한번 생각을

졌는가를 말이에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오빠와는 상종하기도 싫었습니다. 완전히 남이나 다름없어요. 아니 남보다 더한 관계였어요.” 오빠를 죽인 올케를 변호하고 있는 시누이 최씨(42)의 말이다.

지난 12월 18일 딸과 처제를 성폭행하고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남편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임순란씨의 구명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 직후 시누이 최씨와 고향친구 정옥정씨(47)는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가족과 상담소 찾아와 임씨를 도와달라며 임씨의 상황을 호소했다. 상담소는 임순란씨를 면회하고 현재 자체조사와 구체적인 구명운동 방법을 다른 여성단체와 논의 중이다.

30년 가까이 임씨가 일해온 청계천 5가 평화시장에서는 임씨를 아는 상인들을 중심으로 구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1월11일부터 동숭시네마텍에서 개봉된 <안토니아스 라인>을 기획한 동숭아트영상팀은 1월8일부터 임씨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동숭아트영상팀은 여동생 성폭행을 그린 영화상영과 때를 같이해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누이를 중심으로 시작된 임씨 구명운동이 이렇게 확산된 데는 평소 포악하기로 소문난 최씨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당해온 임씨를 일제히 동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위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숨진 최씨는 임씨가 보는 앞에서 다른

“15년 전부터 서울로 올라온 친구 5명이 한달에 한번 만나고 있었어요. 처음 2.3년 동안에는 순란이도 참석했었는데 갑자기 얼굴을 보이지 않더라구요. 전화를 해도 연락이 되지 않고 친척들에게 물어봤더니 일체 연락을 할 수 없다

포악한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오빠를 포기했을 정도입니다. 언니가 가끔 연락하면 근황정도는 알 수 있었지만 우리는 연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오빠네는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완전히 끊고 살았으니까요.”

경북 영양 출신의 임순란씨는 30년 전 혼자 서울로 상경해 줄곧 청계천 5가 평화시장에서 옷부속장사를 해왔다. 22년전 당시 옷 장사를 하던 최씨를 만나 결혼해 최근 2.3년전부터 최씨는 같은 건물 2층에서 사채업을 하고 임씨는 1층에서 장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숙 기자>

숨진 최씨, 큰딸 수능시험 보는

날도 여관 끌고가 성폭행

여자를 끌어들여 성관계를 갖는가하면 심지어 큰딸이 수능시험 보러가는 날조차 인근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오랫동안 집안일을 돌봐준 처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다 결혼할 때 맨몸으로 내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남편을 무서워한 임씨가 보복이 두려워 건디다 못해 청부살해를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주위 사람들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더 심한 폭행도 충분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10년 넘게 임씨의 소식이 두절돼 있어 최근 임씨가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히 알수가 없다는 것이다.

고 했습니다.” 고향친구 정옥정씨의 말이다. 시누이 최씨 역시 같은 말을 한다. “10년 넘게 오빠네와 우리 가족들은 관계를 끊고 살았어요. 워낙